

# 광주, 장애인 특수학급 가장 적다

### 전국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현황 통합교육 학생 비율도 하위권 전남, 소득·경제 활동 지원 낮아

광주시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장애인 특수학급이 가장 적고, 일반학교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수업을 듣는 비율도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장애인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이 광주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의 자립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비교 조사한 '2022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조사는 장애인복지 수준의 지역격차 완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다. 조사 대상 범위는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와 교육 현황이며 기준 연도는 2021년이다.

이번 조사는 17개 시·도별로 장애인들의 교육 및 복지분야 현황과 여건을 전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대비해 파악하고, 강점과 취약점을 확인해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분야는 교육영역 1개, 9개 지표로 구성됐고, 복지분야는 영역 5개, 35개 지표로 구성됐다.

조사결과 전국 17개 지자체의 장애인 교육분야 종합수준 평균 점수는 올랐으나 복지분야 종합수준 평균 점수는 대체적으로 하락했다. 또한 지역간 편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분야 종합수준의 평균 점수는 80.18점(최고 87.69점, 최저 74.4점)으로 나타났다. 광주(76.98)는 지난해보다 점수는 상승했으나 전국 평균보다 낮고, 타 시·군과 비교해 상승폭이 크지 않아 '분발' 등급, 전남(80.71)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분야에서 광주시는 특수학급 설치율이 3.32%로 평균 4.4%(최고 5.86%, 최저 3.32%)보다 낮은 편이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돼 '분발' 등급에 속했다. 반면 전남은 5.55%로 '우수' 등급으로 뽑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통합교육 학생 비율 또한 전남은 '양호' 등급을 받았지만 광주시는 '분발' 등급으로 집계됐다. 통합교육 학생 비율의 전국 평균은 71.52%(최고 77.61%, 최저 64.94%) 수준인데 반해 광주시(66.12%)는 하위권을 기록했고 전남(71.9%)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에서 광주시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평균 점수가 전국 평균(56.72점)보다 높은 65.16점을 보여 '우수' 등급에, 전남도는 44.53점으로 '분발' 등급에 속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점수는 대체적으로 낮아져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전남지역은 '보통' 등급을, 광주시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광주시는 장애인 교원 고용율이 3년 연속 우수 수준으로 나타났고,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지표가 3년 연속 우수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잘 관리되고 있지만 장애인 교육 부문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면서 "전남도는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복지분야의 대부분 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취약했다"고 평가했다.

/민헌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월출산·영암천 일대, 람사르 습지 지정 추진

### 영암군-월출산국립공원, 습지보호 협력 협약

영암군과 월출산국립공원이 '영암천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받기 위해 손을 잡았다.

영암군과 월출산국립공원은 최근 업무협약을 맺고 월출산과 영암천 일대를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습지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람사르 습지는 람사르협회가 지구촌 습지 가운데 보호 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습지를 지정, 등록해 보호하는 습지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순천 동천하구, 순천만-보성갯벌과 무안갯벌 등이 대표적이고 총 24곳의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돼 있다.

월출산국립공원과 영암천 일대의 습지에는 남생이, 수달, 삿, 황새, 말뚝가리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람사르 습지 지정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영암군은 월출산국립공원과 협력해 습지 복원과 람사르 습지 지정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국립공원과 협력해 멸종위기



영암천에서 관찰된 황새

종 남생이 서식지인 습지를 복원하고 람사르습지 국제보호지역 지정과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영산강유역청, 미국가재 1만여 마리 퇴치

### 큰입배스 등 생태계 교란 생물 12종 퇴치사업 진행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호남지역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생태교란종 미국가재 1만여 마리를 퇴치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광주·전남·제주 지역에서 미국가재, 큰입배스, 환삼덩굴 등 생태계 교란 생물 12종을 대상으로 퇴치사업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미국 가재가 많이 서식한다고 알려진 나주·함평 지역에서만 미국가재 1만 1438마리가 퇴치됐다.

광주호, 나주호, 동북호 등 광주·전남 7개 호수에서는 큰입배스 7.5 t, 블루길 9 t이 잡혔고, 나주·함평·제주 일대에서는 황소개구리 392마리, 붉은귀거북 122마리가 퇴치됐다.

장록습지, 담양습지, 제주 물영아리오름 습지 등 국가보호지역에서는 환삼덩굴, 양미역취와 같은 생태계 교란 식물 18.4t이 수거됐다.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2023년



미국가재

에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며 "생태계 교란 생물의 강한 번식력으로 인해 퇴치가 쉽지 않은 만큼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남구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주민 만족서비스 만족도 상승

광주시 남구가 진행중인 주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행복한 복지 7979센터'의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는 지난해 행복한 복지 7979 센터를 이용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전년도 대비 0.6% 상승한 93%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주민 606명을 대상으로 유선 전화 및 서면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500명의 응답자는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288명(57.6%) '매우 만족한다' 176명(35.4%)이 '만족한다'는 항목을 선택했다. 전체 만족도는 93%에 달했다는 것이 남구의 설명이다.

센터 이용의 주된 목적을 묻는 문항에 196명이 '센터'를 통해 각종 어려움 해소를 꼽았고 164명은 '복지 정보에 관한 상담 및 문의'를 위해 센터를 찾았다고 응답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웃들의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는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헌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노인교실 졸업을 축하합니다"

광주시 남구 월산동 남구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2030노인교실'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지난날 30일 졸업 사진을 찍고 있다. 취미·여가·건강 등으로 구성된 노인교실은 13일까지 운영된다. <광주시 남구 제공>

# 광주시, 공병 보증금 신고포상액 8대 특·광역시 중 두번째

광주시가 지난 5년간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2번째로 공병 보증금 반환거부 신고 포상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구)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등에서 공병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소비자가 신고한 뒤 받은 지난 5년간 전국 누적 포상금액은 1323만 원으로 8대 특·광역시 중 서울시(231만 9000원)에 이어 광주시(110만 4000원)가 두번째로 많았다.

환경부는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주, 맥주 등 빈 병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편의점 등에서는 수거 시간대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보증금을 환급해주지 않아 소비자와 갈등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도·소매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증금 반환 거부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 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천홍희 기자 strong@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영광군, 전국 최초 해양쓰레기 실명제 도입

영광군이 "전국 최초로 해양쓰레기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해양쓰레기 실명제는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어선이 속한 어촌계의 이름이 적힌 전용 마대를 통해서만 배출하는 제도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고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영광지역 16개 어촌계 중 법성어촌계에서 오는 2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법성포항 인근에 불법 투기된 해양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와 경관 저해를 막기 위한 조

치다. 영광군은 먼저 법성어촌계에 소속된 어선 한 척당 80kg들이 마대 100장을 제공하고, 효과를 검증한 뒤 16개 어촌계로 제도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육상 해양 쓰레기 집하장 설치와 연계해 해양쓰레기 수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